

## 인니 차량 공유 업체 1·2위 고젝·그랩 합병하나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최대 기술 기업으로 스타트업 신화를 써 내려갔던 차량 공유 업체 고젝이 경쟁자인 싱가포르 기업 그랩에 인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경제매체 비즈니스 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그랩과 고토(GoTo) 그룹은 두 회사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랩과 고젝의 합병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합병 방식은 그랩이 현금과 주식 등을 고토에 지불하고 고젝을 인수한 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철수하고, 대신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젝이 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토는 차량 공유 업체 고젝과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가 결합해 탄생한 회사로 차량공유와 배송,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테크 기업이다.

그랩은 싱가포르에 기반한 회사로 고토와 거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규모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랩(134억 달러·약 17조9천억원)이 고토(101조 루피아·약 8조6천억원)의 2배 수준이다.

그랩이 고젝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리서치회사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인도네시아 차량 공유 시장에서 고젝과 그랩의 점유율은 각각 52%, 48%로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음식 등 각종 배달 서비스 역시 비슷하다.

두 회사가 치열히 경쟁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두 회사로서는 출혈 경쟁을 벌여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토 그룹은 주력 자회사인 고젝과 토코피디아 모두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있다 보니 실적이 계속 악화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주가는 상장 당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고토 그룹은 토코피디아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매각했으며 이번엔 고젝마저 그랩에 매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차량 공유 시장을 양분하는 만큼 경쟁 당국이 두 회사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두 회사는 자신들이 대중교통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합병 후에도 독점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나이롤 후다 디지털 경제국장은 "차량 공유라는 특별 임대 운송 서비스로 한정하면 합병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합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